

그것은 오늘의 의미로는 ‘근대화’작업이다.

유다 민중은 공포와 분노에 떨었으나 이른바 지배층은 무기력함을 넘어서 이 외세를 타고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풍조에 휩쓸렸다. 당시 대사제 오니아스(Onias)가 일시 이에 저항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집권자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 틈을 이용해 그의 동생 야손(Jason)⁵⁾이 은 440달란트를 주고 대사제직을 인수받았다(마카하 4, 7~9). 이것이 외세가 돈으로 사제직을 산 첫 독직사건임과 동시에 외세에 의해서 대사제직이 주어진 첫 경우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간교한 메넬라오스(Menelaus)는 더 많은 뇌물로 이 대사제직을 샀다(마카하 4, 23~29). 이 같은 난맥상은 마카베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마카베오의 봉기와 하스몬왕권

민족의 지배층은 불의한 외세 앞에 무력했거나 아니면 부패하여 권력과 야합하고 이권을 획득하기에 급급했다. 그 지배층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모데인(Modein)에서 안티오쿠스를 위한 축제를 준비하였다. 그 동리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은둔생활을 하는 사제 출신인 노인 마따디아(Mattathias)가 아들 다섯 명과 함께 살면서 시리아의 횡포에 울분을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축제를 집행하는 관원이 한사코 그에게 개막예식을 주관하도록 강요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그가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⁶⁾ 그의 반항정신을 꺾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 그는 이

5) 그의 본명은 Joshua인데 Jason은 회람식으로 개명한 것이다(J. Bright, *A History of Israel*, London, SCM, 1971, p. 403).

6) Jos., *Ant.*, 12, 6, 1.

를 단호히 거부했는데, 한 유다인이 자발적으로 그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데 분격한 마따디아는 그를 처죽임과 동시에 이방 관원들도 처죽이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과 하느님을 경외하는 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아들들과 더불어 입산했는데 수많은 민중이 그를 따라 큰 부대를 이루게 되었다. 주전 166년 마따디아 사제의 아들 중 한 명인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Judas)의 지휘하에 제2차 가나안 농민혁명을 일으켰고, 주전 164년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함과 동시에 제우스 신단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8일간 정화하는 축제를 올렸다(마카상 4, 36~61). 이것이 수전절(Chanukka)의 시작이다.⁷⁾

유다가 전사한 후 그 형제 중 마지막 생존자인 시몬(Simon)이 주전 142년에 이르러 비로소 사실상의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다. 이로써 주전 579년 바빌론에 의해서 잃었던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 시몬은 아시리아 때부터 170년간 부과된 세금의 멍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민이 자유인임을 선포했으며,⁸⁾ 새로운 연호를 설정하고,⁹⁾ 새 화폐를 만들고, 잃었던 국가와 종교와 언어를 재생시켰으며, 에피파네스가 세운 아크라를 제거해버렸다.¹⁰⁾

그러나 마카베오 가는 기득권 유지와 판도 확대에 부심한 나머지 그들이 쫓기할 때의 기본정신을 배반하기 시작했다. 유다가 전사한 후 그의 뒤를 이은 요나단(Jonathan)은 셀류커스와 적대관계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의 왕으로부터 대사제 제복과 왕을 상징하는 금관을 받았으며, 그 뒤를 이은 시몬은 자기의 권력구축에 혈안이 되어 대사

7) 요한 10, 22 참조.

8) 마카상 13, 39; Jos., *Ant.*, 13, 6, 8.

9) 마카상 13, 42.

10) 마카상 13, 49~52.

제직과 군사령관직 그리고 통수권자의 지위를 굳힘으로써¹¹⁾ 유다 전통에 배치되는, 권력과 사제직을 한 손에 쥐는 권력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히르카누스 1세(Hyrkan I, 주전 134~105년 재위)는 계속 그 권력의 판도를 넓히기 위하여 신흥제국인 로마를 등에 업고 요르단 강 건너편 메드바(Medeba), 세겜(Shechem), 이두메(Idumäa)까지 강점하여 그 안의 이방인들에게 할례(割禮)를 강요했으며, 사마리아를 점령함과 동시에 그리짐 산의 신전을 파괴함으로써 예루살렘을 권력과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권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하스몬 군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권력욕이 마침내 로마제국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만다.¹²⁾

로마 · 헤로데 왕조시대

로마의 실력자 폼페이우스(Pompeius, 주전 106~48년)가 동방정벌의 대군을 일으켜(주전 66년) 그 판도를 넓혀가면서 유다인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로마는 본래 상업으로 부유해진 나라다. 그런데 이것은 노예제사회였다. 저들의 생활수준의 성장과 확대는 더 많은 노예를 필요로 했으며, 또한 약소민족의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군사

11) 마카삼 14, 25~49.

12) 클라우스너는 하스몬왕가의 업적이 없었으면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토대도 마련되지 않았으리라고 할 정도로 그 업적을 중시한다(J. Klausner, *Jesus von Nazareth*, 1952³, S. 179ff.). 이러한 평가는 유다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리스토틔와 히르카누스가 세력장악을 위해서 로마에 경쟁적으로 아첨했으며, 아리스토틔는 폼페이우스에게 뇌물을 전달하고(*Jos., Ant.*, 14, 3), 히르카누스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Ant.*, 14, 5, 2). 이를 본 민중은 마침내 이스라엘이 군주국으로 되는 것을 거부하고야 말았다(*Ant.* 14, 3, 2).